

불교수목원 설립 위한 토론회 개최

조계종 기금도 조성

진정한 생태보살로 불교환경운동에 큰 획을 그은 고(故)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의 숙원이었던 불교수목원 설립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스님)는 오는 30일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불교수목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김용식 영남대 조경학과 교수가 '수목원의 역사와 기능, 사회적 역할'에 대해, 류광수 산림청 산림보육국장이 '수목원 설립을 위한 기반 환경과 정책방향'에 대해,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가 '불교자연유산의 활용방안으로서 불교수목원의 필요성 및 계획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스님과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김용하 국립수목원장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는 7월2일 고 김재일 대표의 49제일을 맞아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을 방문하고 사찰생태연구소에 연구기금을 전달한다. 총무원장 스님은 고 김재일 대표의 제안으로 지난 3월 국립광릉수목원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김 대표의 병세가 악화돼 무산된 바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서울한복판 대장경 이운



조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장경 이운행렬이 재현됐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는 지난 19일 조계사 일원에서 '국민대통합 기념식 및 대장경 이운행렬' 행사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5면



지난 21일 조계사를 방문한 리처드 기어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발우공양 공'에서 점심공양을 마친 후 출발하기에 앞서 환대에 감사사를 표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오랜 역사 품은 한국불교 체험 기쁘다”

리처드 기어,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조계사 참배...사찰음식으로 점심 공양

자신 사진전 '순례의 길' 전시를 위해 방한한 세계적인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첫 공식일정으로 한국 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를 찾았다. 리처드 기어는 지난 21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대웅전에서 3배한 뒤 원적부에 "세계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사인을 남겼다. 이어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선 불교'에 대해 환담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리처드 기어와 부인, 아

들에게 단주와 향로, 템플스테이수련복 등을 선물하며 환영했으며 리처드 기어는 꽃과 함께 자신이 티베트를 순례하며 직접 찍은 사진을 선물했다. 리처드 기어는 "일본인 스승 사시키 로시 스님을 통해 선 수행을 처음 접하며 불교를 배웠다"면서 "첫 한국 방문에서 처음 참배한 곳이 선종단인 조계종의 총본산인 조계사라는 사실이 매우 놀랍고 각별한 인연으로 느껴진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리처드

기어에게 화두를 내려 주시라"는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스님의 요청에 대해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영화 '하지 이야기'를 관람했는데 그 속에 그대로 불교가 담겨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리처드 기어는 "영화 원작을 처음 보고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면서 "스님이 강아지 하지에게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의 시작 장면은 마치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문을 주시는 장면 같았다"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리처드 기어는 환담에 이어 불교중앙박물관을 관람하며 티베트불교 문화와 차이점 등을 질문하며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스님

의 안내로 탁본을 체험한 리처드 기어는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이 선불교였는데 한국불교 역시 선불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불교를 체험하게 돼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리처드 기어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에 자리 잡은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공'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전통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하며 환담을 이어갔다.

한편 리처드 기어의 사진전 '순례의 길'은 오는 7월24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V-갤러리에서 열린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美 정부 뉴욕 불광한국문화학교 공식인가

미국 뉴욕 불광선원이 운영하고 있는 '불광한국문화학교'가 최근 미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16일 만난 불광한국문화학교 교장 선문스님은 "지난 5월 말 뉴욕주정부와 미연방정부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교육 과정을 전문화 해 더

욱 많은 어린이들에게 한국전통문화와 불교를 가르치고 싶다"고 밝혔다. 스님은 학교를 홍보하고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일점으로 지난 5월30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불광한국문화학교의 법인화는 현지 불교계에서 이례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학교 운영

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어와 우리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불교기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기관에서

교육받은 수료증은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불광선원(주지 휘광스님)은 지난 2008년 학교 개교와 동시에 법인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2면에 계속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조계종, 구호물품 전달...합동천도재 봉행 일본 대지진 아픔 함께 나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7월7일 현지 방문

조계종이 사상최악의 지진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을 방문해 합동 위령 천도재를 봉행한다. 총무원 사회부는 "오는 7월7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지진피해 지역을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일본 조동종과 천도재를 지내기로 했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3200만 엔(4억 3000여 만원)의 구호성금을 현지 NGO단체와 동북조선총조급학교에 직접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혜경스님, 종책특보단장 정념스님,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등이 참석한다. 또 그동안 아름다운동행 등을 통해 지진피해 복구기원 성금을 기탁한 주지스님들도 동참할 예정이다.

'동일본지진 피해자 천도재'는 조계종과 조동종이 합동으로 오는 7월8일 일 1시간 30분 동안 일본 센다이 린코인(林香院)에서 봉행한다. 천도재는 추도사와 헌화, 불교 의식 등으로 진행하며 희생 영가의 극락왕생을 공경으로 발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조동종 총무총장 사사키 코이치 스님을 비롯해 대지진 희생자 유가족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도재에 이어 대표단은 자리를 옮겨 센다이 쇼린지(春林寺)를 방문해 희생 영가를 위한 축원법회를 거행한 뒤, 인근 이재민 구호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대표단은 천도재에 앞서 조동종 민족학교인 동북조선총조급학교를 방문해 피해 복구 기금을 기탁한다. 이 학교는 센다이시 외곽에 위치한 조동종계 민족학교로, 지난 3월11일 규모 8.0 지진으로 현재 건물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일본 내 정식 인가 학교가 아니어서 정부의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28일 사회부장 혜경스님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 학교를 방문해 구호기금 400만 엔(한화 약 6000만원)과 생수 2만 여 병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7월7일 오후하마 소지지(總持寺)에서 조동종 스님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서로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조동종을 통해 추천받은 시민사회단체에 기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국가 간 이해관계를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고, 그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했다"며 "이번 천도재가 공황에 빠진 일본 국민들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대표단은 7월6일 가마쿠라 광명사에서 열린 "정토종 88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41기 사미 수계교육 8월18일부터 직지사

41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이 오는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16일간 제8교구본사 직지사서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17일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을 공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41기 수계교육은 기존 수계교육이 2주간 진행됐던 것보다 이를 늘려 총 16일간 진

행된다. 지난 7월 개정 공포된 '행차교육원운영에 관한 령'에 의무교육으로 지정됐던 본사교육이 교구본사 재량에 맡겨지고, 수계예비교육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종단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이 강화된 결과다. 지난 2010년 9월18일부터 2011년 3월4일까지 교육원에 행차등록을 한 뒤 입문교육을 필한 행차는 7월12일까지 해당 교구본사로 입교지원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교구본사는 취합된 서류를 교육원에 제출해야 한다. 여현경 기자 esonido@bulgyo.com

제1회 아시아불자 배구대회 대회 '현장' 4면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하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불자님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자님의 상조피해를 막고자 종단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지금 가입하십시오

재향군인회 100% 출자상조

조계종이 보증하는 유일한 번호 | 상담 시 다니시는 사찰 명을 말씀해주세요

무료상담 080-888-5000

경제적인 상조

장례비용이 시중보다 저렴합니다

편리한 상조

복잡한 장례절차를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한결같은 상조

물가가 올라도 추가 부담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재향군인회 상조회

중요정보 고시사항 1.종도해원환급금 및 환급기준 가. 표준약면 제15조 제 규정에 의함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3연일 이내에 환급 다. 만기 3개월 후 해지시 납입금액의 100% 환급 2.소비자분쟁 시 분쟁의 해결기준 공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함 3.주요제정내용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의 원단 제초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나. 원사의 종류:대마 100%(중국산) * 원단의 제초 방법 및 제초지:수제직조(비탄동 다. 관의 재질: 두께 및 원산지 * 매장시:오류나무(중국산)3~4.5cm * 화장시:오류나무(중국산)1.8~3cm 다. 차림의 종류 및 무로 제공되는 차림거리 나. 차림의 종류 - 오류나무진 린키케(2006년 이상) - 장의버스:현대 기아(2008년 이상) * 주차비용:상문별 기본 무료제공 이의 처리 추가시 10km당 운구버스16,000원 리무진 18,000원 *차량 및 비용은 제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서비스 제공 인력: 프리엄 (4명) *도우미 추가시1인당 8만원(10시간 제공 2009년 기준) 4.총고객 환급의무에 상조관련자 및 공인회계사 감사여부 (2011년 02월 28일 기준) 가. 상조관련 자산: 397.9억원 나. 총 고객 환급의무액: 355.9억원 다. 총 고객 환급의무액 대비 상조관련 자산 보유비율: 1.12% * 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를 받았음 (회계회계법인) 5.고객별환급금의 관리방법 고객별환급금의 47.9%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외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